

국제금융시장 8월 동향 및 9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양서영 (syeeong@kdb.co.kr)

- ◆ **(환율)** 8월 환율은 미국채 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9월도 달러 강세 흐름 예상되나 미국 FOMC 결과, 중국발 리스크 추이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 **(금리)** 8월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9월은 미 FOMC 및 물가상승률 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 **(주가)** 8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중국발 금융 리스크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9월은 미국 장기채 금리 안정세 여부 및 중국 부양책 정도 등에 따라 변화할 전망

□ 8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한국은 금리 동결하여 현재의 긴축기조 이어갔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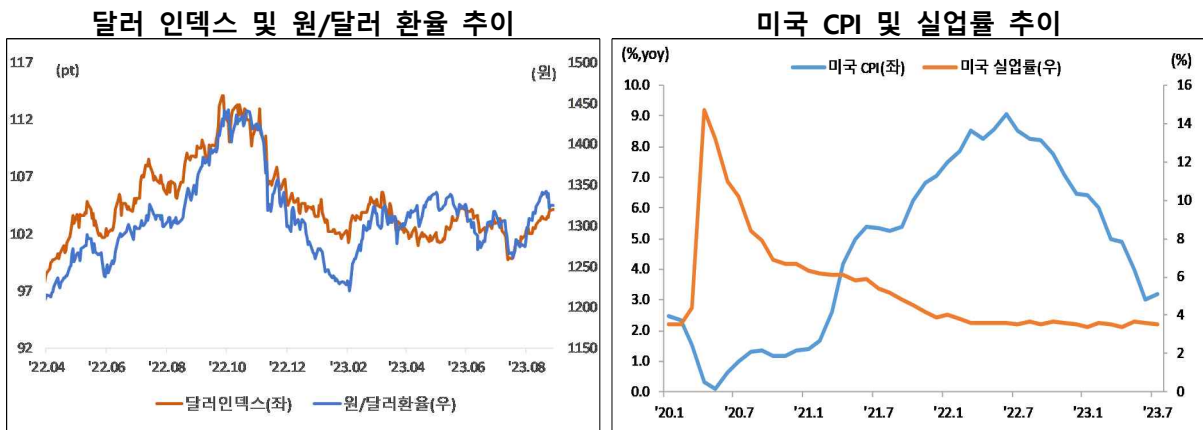
- 한국은행, 금통위(24일)에서 기준금리 동결(3.5%)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함에 따라 긴축기조 유지
 -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하였으나, 중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24년 전망치를 5월 전망치(2.3%) 대비 하향한 2.2%로 조정
 -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25일)을 통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
 -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2%) 대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보인 하락세가 해외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
 -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점을 단언할 수 없으며, 목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명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유동성 문제 및 디폴트 우려 점증
 - 중국 최대규모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벽계원(country garden)이 두 건의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7일)하여 유동성 문제 부각
 - 이후 중국 부동산 섹터 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강한 매도세 발생하였고, 달러/위안 환율이 연중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점증
- * 달러/위안: 6.89(1.2) → 6.91(3.2) → 6.91(5.1) → 7.09(6.1) → 7.17(7.17) → 7.29(8.28)

□ '23.9월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9월 FOMC(19~20일) : 연준이 7월 FOMC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등을 통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재차 상승(4.0% →3.0%→3.2%)함에 따라 9월 FOMC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월초 발표될 고용 보고서(1일) 및 소비자물가(13일) 발표를 전후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 유럽, ECB(14일) : 라가르드 ECB 총재는 고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시사하였으나, 최근 유럽 경기 및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상승
 - 유로존의 '23.2분기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쳤으며, '23.7월 CPI 상승률도 5.3%로 '22.10월(10.7%) 이후 지속 둔화 추세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 (환율) 8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에 따라 상승하였으며, 9월도 전반적인 달러 강세 흐름 예상되나 미국 FOMC 결과, 중국발 리스크 추이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8월 달러인덱스는 미국 장기채 금리 급등,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이에 동조화하며 상승
 - 9월에도 전반적인 달러 강세 흐름 예상되나 완화된 FOMC(20일) 결과가 도출되거나 중국 금융 리스크 안정 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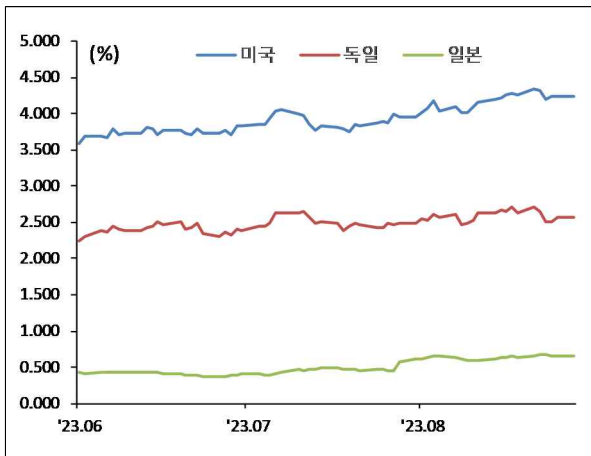


	'21년말	'22년말	'23.7월말	'23.8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88.8	1,264.5	1,269.53	1,324.78	+4.35%
달러 인덱스	96.14	103.49	100.88	104.18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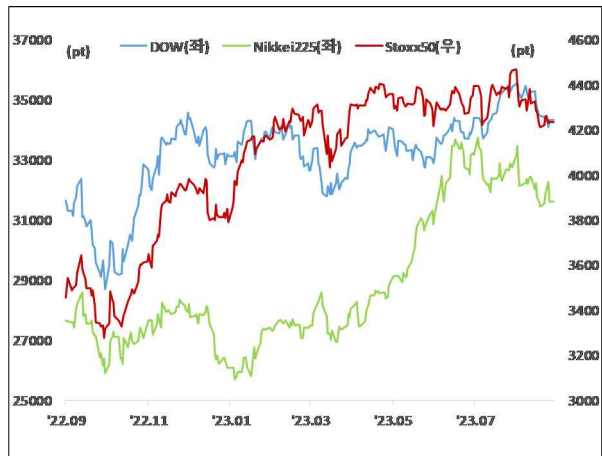
- (금리) 8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하였으며, 9월은 미국 FOMC 및 물가상승률 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8월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증가 우려, 양호한 소비 상황 등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예상 등으로 금리 상승
 - 9월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강세 압력 받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CPI 결과 및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주가) 8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중국발 금융 리스크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9월은 미국 장기채 금리 안정 여부 및 중국 부양책 정도 등에 따라 변화할 전망
 - 8월 다우, 유로스톡스, 니케이 등 주요국 주가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기업 벽계원의 채무 불이행 등 부동산 발 리스크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 9월 주가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안정세 여부, 중국 정부의 부양책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21년말	'22년말	'23.7월말	'23.8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1.5101	3.8748	3.850	4.235	+38.5bp
독일채 10y	-0.1770	2.5710	2.490	2.561	+7.1bp
일본채 10y	0.0710	0.4220	0.467	0.661	+19.4bp
다우존스	36,338.30	32,875.71	35,225.18	34,346.9	△2.49%
유로 Stoxx 50	4,298.41	3,808.82	4,373.73	4,236.25	△3.14%
Nikkei 225	28,791.71	26,340.50	32,490.52	31,624.28	△2.67%

자료 : Bloomberg